

사설

남골시설 확대해야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변하고 있다면 감상이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1%가 묘지이며, 전국에 약 2천만기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비해 유교문화의 본산인 중국은 이미 화장문화가 90% 이상 정착되어 있다. 마오쩌둥 치하에서 수상을 지낸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등의 국가 지도자들도 솔선하여 화장한 뒤에 산골(散骨)했다.

불필요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실용적인 장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매장에 대한 선호도를 상당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된다. 서민들엔 매장이 또 하나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화장과 납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제는 화장과 납

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자나 정치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회 인사들이 화장과 납골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납골시설협회에 가입된 19개의 단체 중에서 13곳이 불교와 유관한 단체로 파악되고 있다.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서민들의 생활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복지사업이란 점을 간파해선 안 된다. 경제적 논리보다는 복지적 측면에서 납골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불교계 차원의 후원과 캠페인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영규대사 현창 불교계의 몫

임진왜란 당시 첫 승병부대 지휘자였던 기허당 영규대사를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기일(음력 9월 14일)을 전후해 공주 갑사, 옥천 가산사 청주 등 인연지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는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간 조명되지 않은 8백 승병들의 청주성 탈환과 금산성 전투 활약상을 재조명 하는 등 무게 있게 준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조계종 중앙총회는 영규 대사와 8백 승병의 순국충혼위령탑 건립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간 영규 대사를 정점으로 하는 8백 승병의 활약상이 학계는 물론 불교계에서도 그리 비중 있게 조명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조현과 7백 의사들의 무덤인 칠백의총은 사적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지만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승병들에 대한 기념

물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마당에 불교계가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위령탑과 기념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랜 세월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져 있던 찬란한 보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학계는 영규대사의 정신과 승병들의 활약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인연 있는 사찰은 영규대사와 8백 승병들을 기리는 불사와 행사를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뜻깊은 불사는 한국불교 전체가 함께 할 때 더 빛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종단과 종파를 초월해 한국불교의 모든 구성원이 동참할 때 비로소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역사'가 보다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에서 영규대사 현창 사업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보길 바란다.

‘주5일근무’ 포교대책 시급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법안이 8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불교계가 포교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불교계는 주5일 근무제를 포교의 호재로 평가, 종단 또는 개별 사찰 단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주말수련 프로그램 등이 불교문화의 지나친 상품화, 사찰의 관광화 등 포교의 역효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8면**

종단주도로 체계적 운영·관리지침 수립

수행·휴식 구분된 효율적인 운영해야

외국노동자·장애인 위한 복지개념 도입

정말프로그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감사원 환경문화2과장)은 “종교색이 짙은 기존의 주말프로그램은 일반인이나 타종교인들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며 “폭넓은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프로그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감사원 환경문화2과장)은 “종교색이 짙은 기존의 주말프로그램은 일반인이나 타종교인들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됐다”며 “폭넓은 참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의 주5일제 접근방식이 보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남 대흥사 윤호중 기획과장은 “설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소외계층인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저소득층 노동자 등을 위한 복지 개념의 주말수련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전문가들은 종합적·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종단·교구본사·개별사찰과 신도·직장직능불교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5일제 불교계 대책자문단’(가칭)을 조속히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실시, 설문조사, 모범 프로그램 보급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조계종 행사교육 회향

조계종 제25기 행사교육원인 9월 5일 2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회향했다.

이날 열린 수계식에서는 남행자 77명, 여행자 73명 등 모두 150명이 사미(니)계를 받고 조계종의 예비승이 됐다. 여기에는 24기 5급 승가고시 불합격자 3명(사미 2, 사미니 1)도 포함됐다.

이번 25기 행사교육원에는 남행자 105명, 여행자 87명 등 192명이 지원했지만 서류심사, 입방고사, 갈마 등을 거치면서 38명이 탈락했고, 6 불식이 이후 교육 과정에서 6명이 중도탈락하고 남행자 1명이 5급 승가고시에서 떨어졌다. 외국인 행자 2명도 이번에 사미(니)계를 받았다.

위탁·대여 성보문화재 환수논의

국보 2점 등 1160점 역사문화기념관 전시

성보보존위 7차회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8월 29일 상항함에 따라 기념관 내 박물관에 전시할 성보문화재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9월 9일 열린 제7회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탁인 문화부장) 회의에서 “조계종 사유지 내 국·공립 박물관 등에 위탁·대여된 불교문화재는 98건 2121점”이라며 “이 중 일부 문화재에 대한 환수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들 문화재를 포함한 박물관에 전시할 성보문화재는 총 1160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국보 2점, 보물 11점, 지방유형문화재 7점이 포함돼 있다.

관련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 모 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기탁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유물을 기탁한 소유자가 유물 반환을 신청할 경우, 기탁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만 거치면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문화재 환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찰 문화재가 국·공립 박물관에 기탁될 당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가 드물고, 발급했다더라도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관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증명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대에서 맡긴 물건을 손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군법사 4명 소령진급

국방부는 8월 27일 군법사 4명을 포함한 준중장교 11명을 소령으로 진급시켰다고 발표했다. 군목사는 6명, 군신부는 1명이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번에 소령으로 진급한 군법사는 수도사단 백태현 법사(군수 26기), 특수전사령부 함현준 법사(군수 27기), 행정학교 교원부 법사(군수 28기), 67사단 박수준 법사(군수 29기) 등 4명으로 2000년 2명, 2001년 2명, 2002년 3명의 군법사가 영관급으로 진급했던 것에 비해 최대 진급 숫자를 기록했다.

‘동국대 목왕리토지 매입때 부정’

영답스님, 종립학교관리위서 의혹제기

9월 2일 열린 제49차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전체 회의에서 영답 스님은 “동국대가 96년 영답 사업부지로 경기도 양평 목왕리 산 19-1의 17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횡령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답 스님은 그 동안의 서류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학교)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게 관행인데도 실제 매수 가격(29억9996만원)이 감정평가액(19억224만 원)보다 10억 원 정도 높은 점 △사업타당성 문제나 인허가 문제, 민원문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중간에서 10억원 정도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했다.

토지를 매수할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은 게 관행인데도 실제 매수 가격(29억9996만원)이 감정평가액(19억224만 원)보다 10억 원 정도 높은 점 △사업타당성 문제나 인허가 문제, 민원문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중간에서 10억원 정도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기사작성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전화: 02-732-1522 FAX: 02-737-0697
 팩스: 02-732-1522 FAX: 02-737-0697
 광고: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합동 득도 수계산림

태고종, 29~10월22일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29일 오후 2시 순천 선암사에서 ‘제27기 합동 득도 수계산림’ 입재식을 봉행한다. 합동 득도 수계산림은 조계종의 행사교육원에 해당하는 예비 승려 교육과정으로, 4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 10월 21일 ‘득도고시’에 합격하면 22일 사미(니)계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27기 행사 중에는 전 KBS 사장인 박현태(70)씨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씨는 사미계를 수계하고 내년 3~4월경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연수교육을 마친 뒤 태고종 승려증을 받게 된다.

월간역학 명당탐지기 관통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통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통자란?
 심층학이라고도 불리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어오던 기구입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진산실업(주)에서 완벽하게 재현하여 국내외에 공급받은 물론 해외에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관통자는 명당을 찾는 「명당탐지기」로 수백탐지봉과는 완전히 다른 기구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남굴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통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 산발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점(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어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지리사 등 4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관통자는?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모든 사찰들의 대웅전 중앙과 서쪽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대교당 등 종교단체의 건물 중앙, 세종대통령, 남연군 묘와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종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屈)와 오사카 성 등의 문화재, 중국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 능, 대만 타이베이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통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총내 예산에서 교육장을 책임진 김모선생께서 관통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목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들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 개씩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합니다.

원래 관통자는 88만원 입니다만, 2003년 7월로 월간역학 창간 13주년을 맞아 130만개만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통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93,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리우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까지 할부가능. 기업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3개월 이내 언제든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 수택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 과월호(93년~2001년도분)를 1년분(12권)을 7만5천원에 판매합니다.

• 동영상(인터넷) 역학 강의 : 전국 어디서나 강의실까지 직접 오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저렴한 비용과 짧은 시간내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예 : 사주 초급 3개월 7만원)

장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
 www.kbs.cc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과 인터넷 동영상 역학 화원인 월간역학 원격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인식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역학 수강생·강사모집 및 공개강의

사 주	수 상
• 초급에서 원상까지 (6개월 원상) • 월 12만원 • 매주 토요일 14:00~17:00 • 개강: 9월 6일(토)	• 3개월 과정 (6개월 원상) • 월 10만원 • 매주 목요일 13:00~15:00 • 개강: 9월 18일(목)

■ 공개강의: 사주·수상 9월6일 13:00~

■ 강사모집: 사주, 육임, 육호 풍수 기본모집, 저미부수
 ■ 강의실 위치: 동대문 운동장역 10번출구 신당동 방향 20m